

200만명 촛불 든다



내일 광주 7만 등 '박근혜 퇴진' 전국 촛불집회

25일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으로 빚어진 '최순실 정국'이 한 달째를 맞았다. 지난달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갑작스럽게 개헌을 제안한 이틀날 대통령 연설문 200여 개가 수록된 최초의 태블릿 PC가 전격 공개되면서 촉발된 '흔미 정국'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각계 각층의 국민은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시국선언과 함께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는 이제 국민의 일상이 됐다. 중고교생까지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고 나섰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박근혜 퇴진 광주소식' 등 지역에서 서민 모두 10개 이상의 '박 대통령 퇴진' 촉구 페이스북 페이지가 개설돼 집회와 관련 뉴스,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식당가에는 '순실이 공부정식'이 등장하고, 연예계에서도 '최순실'을 빗댄 패러디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폭소를 자아내는 등 비리와 무능으로 점철된 현 정권에 대한 반감이 국민 생활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26일 열리는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

최순실 정국 한 달

국민들 일상이 된 집회·시위

평일 시국선언·주말엔 촛불

초중고생까지 온가족 거리로

SNS엔 대통령 패러디 넘쳐

하는 5차 촛불집회에는 광주·전남을 포함, 전국적으로 200만 명가량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최고 규모다. 박 대통령이 최근 시국선언과 한 달 동안 지속돼온 촛불집회 등을 통해 나타난 퇴진과 하야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약속했던 검찰 수사를 회피한 채 "차라리 탄핵하라"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탓에 성난 민심이 더욱 거세게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와 '박근혜 정권 퇴진 목포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 광주시 동구 금

남로 일대에서 '박근혜 퇴진' 광주 7만 촛불대회'를 열 계획이다.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촛불집회 직후 두 갈래로 금남로5가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비가 내릴 것에 대비해 촛불 대신 시민들이 스마트폰 LED 조명을 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향후 개최되는 촛불집회를 위해 시민 모금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9일엔 광주에서 개최된 촛불대회에는 7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여수·순천·목포 등 전남 지역에서도 26일 각 지역별로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1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6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행사를 연다.

주최 측은 이번에도 청와대 입구 신고동 로터리와 삼청로 등을 지나는 행진을 신고했으며 경찰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경로를 울곡로 남쪽까지로 제한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문화전당 개관 1년 '드림 나이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4일 아시아문화광장에서 개최한 개관 1주년 기념 '야외광장 문화행사 DREAM NIGHT'의 출품작 '이글루 프로젝트'(김기라 작가).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야외콘서트,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박근혜 탄핵’ 발의 초읽기 새누리 찬성 40명 넘어서

다음달 2~9일 국회 표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2·3·4·5·7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 추진 일정을 못 박았다. 이르면 다음 달 2일, 늦어도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국민의당 탄핵준비단이 탄핵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경우 이달 말 정 의당과 함께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안에 적시할 박 대통령의 혐의만 정하면 다음 주 초 초안이 완성된다.

일단 세 야당과 무소속을 합쳐 172명이 탄핵안 발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도 동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김 전 대표는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의원들로부터 '확약 서명'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의 측근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탄핵에 찬성하는 의

원은 오늘 중 40여명까지 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했다.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의 172명과 새누리당에서 40여명의 의원들이 탄핵에 참여한다면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2004년 3월 9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이후 12년 만이다. 대표 발의자는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탄핵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탄핵에 찬성하더라도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막상 표결에서 반대로 돌아설 수 있다. 이에 따라, 야권은 탄핵에 찬성할 새누리당 의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을 포함, 4당이 단일 탄핵소추안을 내야한다"고 제안했다. 탄핵안 발의의 주체에 새누리당까지 포함시켜 이탈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국민의당, 특검 후보 2명 다음 주 결정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하고 국회에 송부했다.

박 대통령이 추천의뢰서를 보낸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일 이내에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

야 한다. 박 대통령은 그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한편, 박 대통령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반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반려 시기를 저율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미 사망선고”

시도교육감협, 현장검토본 취소 촉구...법원 “집필기준 공개하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28일로 예정된 국정교과서의 현장검토본 공개 취소를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4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총회에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묵살한 채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

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국가가 지정한 단일한 역사관만을 주입하겠다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과 측근들에 의해 자행된 국정농단, 교육 농단의 정황이 밝혀지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국정교과서는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민적 신뢰조차 상실한 이미 '사망선고'가 내려진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이날 민사소송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4년 100억 ... 최형우 KIA 온다 ▶20면

혼돈의 정국 해법 김희중 대주교에 듣는다 ▶5면

AI 예방, 겨울철 닭·오리 사육 중단 논의 ▶6면

yongsan_moaelgaa.co.kr

용산지구 모아엘가 에듀파크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예코 프리미엄과 넓은 동간거리가 선사하는 축구경기장 정도의 드넓은 단지 내 공원까지

봉선에 없던 단 하나의 명품특권!

OPEN EVENT

오픈 3일 간(11.25 ~ 27) 풍성한 선물이 가득!

- 1 매일매일 경품추첨 이벤트
- 2 오픈 3일 선택권 이벤트
- 3 100% 당첨 룰렛 경품 이벤트

* 자세한 사항은 주택전시관으로 문의바랍니다.

**11월 25일
OPEN**

2015년 한경 주거문화대상
아파트대상 수상

전세대 84㎡
총 570세대

시행 **한이건설(주)** 시공 **모이건설산업(주)** 예림건설(주) 주택전시관 :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05

*상기 투시도는 소외자의 이해를 위해 제작된 CG로만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으며, 건물 외관, 바닥면, 시설물 위치 및 외부상세 등은 인화기, 색재현성 및 법규의 변경으로 인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8차 단지에 따른 소외자 피복시설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적용합니다.

문의 062) **523-2007**